

### 문1. ㉓

- ① ‘살쾅이’, ‘털어먹다’가 표준어이다.
- ② ‘셋째’, ‘애플프다’가 표준어이다.
- ④ ‘광주리’, ‘강낭콩’이 표준어이다.

### 문2. ㉑

- ㉑에는 돈을 받고 기뻐하는 황수건의 행동이 나타난다. ㉑을 가지고 참외 장사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.
- ㉒ 요약적 제시는 화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사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. ㉒에는 황수건에게 일어난 일들이 ‘나’를 통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.
- ㉓ “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죠.”라는 말을 통해 황수건의 고마움의 표시임을 알 수 있다.
- ㉔ 황수건이 가져온 포도를 ‘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’라고 표현한 부분과 ‘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’라는 말을 통해 ‘나’가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### 문3. ㉔

- ①, ②, ③은 음운 축약 현상의 예이고 ④는 음운 탈락 현상의 예이다.
- ① ‘옳다[올타]’는 ‘ㅎ’과 ‘ㄷ’이 ‘ㅌ’으로 축약된 것이고, ‘옳지[올치]’는 ‘ㅎ’과 ‘ㅈ’이 ‘ㅊ’으로 축약된 것이다.
- ② ‘취라’는 ‘주어라’의 ‘ㄱ’와 ‘ㄴ’이 ‘ㄱ’로 축약된 것이다.
- ③ ‘막혀[마켜]’는 ‘ㄱ’과 ‘ㅎ’이 ‘ㅋ’으로 축약된 것이고, ‘맞힌[마친]’은 ‘ㅈ’과 ‘ㅎ’이 ‘ㅊ’으로 축약된 것이다.
- ④ ‘가서’는 ‘가아서’에서 ‘ㅏ’가 동음 탈락에 의해 탈락된 것이다.

### 문4. ㉒

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이고, 단독으로 쓰이거나 뒤에 조사가 붙으면 수사이다. ‘한, 두, 두세’는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이고, ‘한둘’은 ‘하나둘’의 준말로 ‘하나나 둘쯤 되는 수’를 뜻하는 수사이다.

### 문5. ㉒

‘비나리치다’는 ‘아침해서 환심을 사다.’를 뜻하는 말이다. 『표준국어대사전』에는 ‘비나리치다’가 올라가 있지 않지만 ‘비나리’가 ‘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침함.’을 뜻하는 말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‘비나리’를 통해 ‘비나리치다’의 뜻을 유추할 수 있다.

### 문6. ㉔

- ① 옐로우(yellow) → 옐로
- ② 알콜(alcohol) → 알코올, 써클(circle) → 서클
- ③ 도너츠(doughnut) → 도넛

### 문7. ㉔

해명 자료(2)에서 ‘국내 주소지가 단독세대원인 경우는 거의 없음’이라고 하였다. 이는 단독세대원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.

- ① (2)에서 재외국민들의 아이핀 발급이 어려운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.
- ② 마지막의 ‘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단독세대원은 공공아이핀 발급이 불가능’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③ 밑줄 친 부분은 ‘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신청’과 ‘대리인(가족관계) 신청’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부자연스럽다. ‘주민등록증 발급일자’ 뒤에 적절한 말을 넣어 ‘주민등록증 발급일자 확인이나 대리인(가족관계) 신청’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.

### 문8. ㉑

- 다근이[디그시]: 한글 자모의 이름은 표준발음법 제16항에 따라 발음한다. ‘홀이불’은 [홀니불] (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‘ㄴ’ 첨가) → [홀니불] (비음화)로 발음한다.
- ② 뚫는[뚫른]: ‘ㅈ’ 뒤에 ‘ㄴ’이 결합되면 먼저 ‘ㅎ’이 탈락되고 유음화에 의해 ‘ㄴ’이 ‘ㄹ’로 바뀐다.
  - ③ 뉘죽하다[뉘죽카다]: ‘뉘죽하다’의 ‘뉘’는 [뉘]으로 발음한다. 그리고 ‘ㄱ’과 ‘ㅎ’이 만나면 ‘ㅋ’으로 축약되므로 ‘뉘죽하다’는 [뉘죽카다]로 발음한다.

다.

- ④ 휴만[홍만]: 겹받침 ‘ㄹ’이 대표음 ‘ㄱ’으로 실현된 뒤에 비음화에 의해 ‘ㄱ’이 ‘ㅇ’으로 바뀐다.

### 문9. ㉑

- ‘손놀림’은 명사 ‘손’과 파생어 ‘놀림’이 결합한 합성어이다. ‘책꽃이’도 명사 ‘책’과 파생어 ‘꽃이’가 결합한 합성어이다. [책 + (꽃 + 이)]
- ② 헛 + 소리: 접두사 ‘헛’과 명사 ‘소리’가 결합한 파생어이다.
  - ③ 가리 + 개: ‘가리다’의 어간에 접미사 ‘-개’가 결합한 파생어이다.
  - ④ [(흔들 + 리) + ㅁ]: ‘흔들다’에 피동 접미사 ‘-리-’가 결합한 파생어 ‘흔들리다’에 명사 파생 접미사 ‘-ㅁ’이 결합한 파생어이다.

### 문10. ㉔

- 집중력(集中力 모을 집, 가운데 중, 힘 력): 마음이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힘.
- ① 중요(重要): 귀중하고 요긴함.  
중요(仲要 버금 중, 요긴할 요)
  - ② 대중(大衆): 수많은 사람의 무리.  
대중(對衆 대할 대, 무리 중)
  - ③ 중개사(仲介士 버금 중, 길 개, 선비 사):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상행위를 대리하거나 매개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.  
중개사(重介士 무거울 중, 길 개, 선비 사)

### 문11. ㉒

- 〈보기〉의 작품은 구상의 「초토(焦土)의 시(詩) 8」이다. 이 시는 「초토의 시」라는 연작시 15편 중의 하나로서, 6·25라는 동족상잔(同族相殘)의 비극적 전쟁으로 생긴 ‘적군 묘지’에서 동포애의 연민과 비애를 노래한 작품이다.
- ① 「객주」는 1878년부터 1885년에 걸친 시기의 보부상에 대한 이야기이다.
  - ② 「오발탄」은 남북 분단과 전쟁을 배경으로 피란민촌의 한 가정이 붕괴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어지러운 현실과 타협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양심과 자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.
  - ③ 「토지」는 1897년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는 장대한 규모의 대하소설이다.
  - ④ 「장길산」은 조선 숙종 때의 도적 ‘장길산’에 대한 이야기이다.

### 문12. ㉓

- ㉔의 ‘뉘었다’는 형용사 ‘뉘다’의 사동사이다. 따라서 동사만 사동화될 수 있다는 ㉓은 적절하지 않다.
- ① 사동문에는 ‘-게 하다’를 통한 통사적 사동문(㉑)과 사동 접미사를 통한 파생적 사동문(㉔)이 있다.
  - ② ㉑의 주어는 ㉑에서 부사어로 나타나고, ㉔의 주어는 ㉔에서 목적어로 나타난다.
  - ④ ㉑의 ‘먹었다’는 두 자리 서술어지만 ㉑의 ‘먹게 하였다’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. 그리고 ㉔의 ‘뉘다’는 한 자리 서술어지만 ㉔의 ‘뉘었다’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.

### 문13. ㉑

- ‘하늘, 바람’은 고유어지만 ‘심지어(甚至於), 어차피(於此彼), 주전자(酒煎子)’는 한자어이다.
- ② ‘학교(學校), 공장(工場), 도로(道路), 자전거(自轉車), 자동차(自動車)’는 모두 한자로 적을 수 있다.
  - ③ ‘고무’는 프랑스, ‘담배’와 ‘빵’은 포르투갈, ‘가방’은 네덜란드, ‘냄비’는 일본에서 왔지만 고유어처럼 인식되는 귀화어이다.
  - ④ ‘눈깔, 아가리, 주둥아리, 모가지, 대가리’처럼 점잖지 못하고 천한 말을 ‘비어’라고 한다.

### 문14. ㉓

- ‘오늘 내가 본’은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다.
- ① ‘칠수(가) 밥(을) 먹는다.’에서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었으므로 ‘밥’은 목적어 기능을 수행한다.
  - ② ‘그 사람이’는 주술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절로 볼 수 없다. 그리고 ‘그런 심한 말을’은 ‘말이 심하다’가 관형절로 안겨 있지만 ‘그런 심한 말을’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은 아니다.

- ④ '이'는 주격 조사이다. 따라서 ㉔의 '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'은 명사절로 실현된 주어이다.

## 문15. ㉓

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다고 했으므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인 '기호지세'가 적절하다.

- ① 등고자비(登高自卑):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오른다는 뜻으로, 일을 순서대로 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. 또는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춤을 이르는 말.  
 ② 각자무치(角者無齒): 뿔이 있는 짐승은 이가 없다는 뜻으로,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나 복을 다 가질 수 없다는 말.  
 ③ 기호지세(騎虎之勢):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,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 
 ④ 순망치한(舜亡齒寒):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,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.

## 문16. ㉓

- ㉔ 1910년대: 이인직의 「혈의 누」는 1906년에, 이해조의 「자유종」은 1910년에 발표되었다.  
 ㉕ 1910년대: 이광수의 「무정」이 『매일신보』에 연재된 것은 1917년이다.  
 ㉖ 1920년대: 『창조』는 1919년, 『폐허』는 1920년, 『백조』는 1922년에 등장하였고 『조선일보』와 『동아일보』는 1920년에 발행되었다.  
 ㉗ 1930년대: 염상섭의 「삼대」는 1931년에, 이광수의 「흙」은 1932년에, 채만식의 「태평천하」는 1938년에 발표되었다.  
 ㉘ 1940년대: 『조선일보』와 『동아일보』는 1940년에, 『인문평론』(1939)과 『문장』(1939)은 1941년에 폐간되었다.

## 문17. ㉔

- ②의 '비치다'는 '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이다.'의 뜻으로 바르게 사용되었다.  
 ① ㉑ '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이다.'의 예에 해당한다.  
 ③ ㉓ '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거나 의사를 던지시 깨우쳐 주다.'의 예에 해당한다.  
 ④ ㉔ '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되다.'의 예에 해당한다.

## 문18. ㉔

연서법(이어쓰기)은 입술소리 아래에 'ㅇ'을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[순경음(唇輕音)]를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이다. 순경음의 예로는 '빙, 풍, 땡, 땡'이 있다.

- ①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 만든 초성은 'ㄴ'이다. 'ㄱ'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.  
 ② 'ㄱ, ㄴ, ㄷ, ㄹ, ㅇ'의 5개 기본 문자에 가획의 원리로 'ㅋ, ㆁ, ㅌ, ㅍ, ㅊ, ㅅ, ㅆ, ㅇ, ㅎ' 총 9개의 문자를 만들었다.  
 ③ 훈민정음 문자의 수는 초성 17자와 중성 11자를 합하여 총 28자이다. 중성은 '중성부용초성(終聲復用初聲)'이라 하여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사용하였다.

## 문19. ㉔

'데'는 '곳'을 뜻하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.

- ① 타협점은V커녕 → 타협점은커녕: '은커녕'은 '은'과 '커녕'이 결합한 보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.  
 ② 바람V소리V밖에 → 바람V소리밖에: '밖에'는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'그것 말고는', '그것 이외에는'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.  
 ③ 그V만큼 → 그만큼 / 있을만큼 → 있을V만큼: 체언 뒤의 '만큼'은 조사이므로 '그만큼'은 붙여 써야 하고, 관형어 뒤의 '만큼'은 의존명사이므로 '있을V만큼'은 띄어 써야 한다.

## 문20. ㉔

- ① 온고지신(溫故知新) 따뜻할 온, 연고 고, 알 지, 새 신):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. 古(옛 고)  
 ② 맥수지탄(麥秀之嘆) 보리 맥, 빼어날 수, 갈 지, 탄식할 탄): 고국의 멸망을

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.

- ③ 식자우환(識字憂患) 알 식, 글자 자, 근심 우, 근심 환):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됨. 耄(늙 자)  
 ④ 좌고우면(左顧右盼) 왼 좌, 돌아볼 고, 오른쪽 우, 결눈질할 면):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,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. 考(생각할 고)